

보도일시 2024. 1. 31.(수) 16:00

배포 2024. 1. 31.(수) 09:00

## 해수부·농식품부·수협·농협이 함께 힘을 모아 설 명절 장바구니 부담 완화

- 해수부·농식품부장관, 농협 양재 하나로마트 방문, 설 성수품 수급상황 합동 점검
- 설 명절 전까지 16대 성수품 공급 확대, 할인 지원 지속 등 대책 차질 없이 추진

강도형 해양수산부(이하 해수부)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(이하 농식품부) 장관은 1월 31일(수) 오후,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하여 16대 설 성수품\*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.

\* (농산물) 배추, 무, 사과, 배, (축산물) 소·돼지·닭고기, 계란, (임산물) 밤·대추, (수산물) 명태, 오징어, 갈치, 참조기, 고등어, 마른멸치

이번 방문은 설 명절이 10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지난 1월 16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, 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역대 최고 수준의 성수품 공급\* 및 할인지원\*\* 등의 효과를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지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\* 16대 설 성수품 공급계획 : 25.7만 톤(평시 대비 1.5배 수준)

\*\* 설 할인지원 예산 : 840억 원('23년 설 300억원 대비 2.8배 수준)

1월 19일부터 30일까지 16대 성수품은 총 14만 8천 톤(당일까지 계획 대비 105.1%)이 공급되었으며,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은 1월 11일부터 24일까지 총 840억 원 중 392억 원을 집행하는 등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.

이에 따라 1월 19일부터 30일까지 16대 성수품의 소비자가격은 작년 설 전 3주간 평균 대비 2.4% 낮은 수준\*을 유지하고 있다. 지난해 기상재해로 생산이 감소한 사과(14.9%), 배(22.0%)와 전 세계적인 생산감소를 겪고 있는 오징어(12.0%) 등 가격이 전년보다 다소 높으나, 소고기(△2.4%), 돼지고기(△6.9%), 계란(△11.4%) 등 축산물과 갈치(△9.2%), 명태(△5.0%) 등 수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며 전체 가격 하락세를 이끌고 있다.

\* 16대 성수품 소비자가격(1.19~1.30일, 전년 설 前 3주간 평균 대비) : △2.4%(물가 가중평균), (배추) 3,126원/포기(4.6%), (무) 1,521원/개(△17.9%), (사과) 27,485원/10개(14.9%), (배) 33,590원/10개(22.0%), (소고기-등심) 9,530원/100g(△2.4%), (돼지고기-삼겹) 2,303원/100g(△6.9%), (닭고기) 5,630원/kg(△0.9%), (계란) 5,888원/30개(△11.4%), (밤) 6,088원/kg(3.1%), (대추) 16,649원/kg(0.1%), (명태) 3,002원/마리(△5.0%), (오징어) 4,350원/마리(12.0%), (갈치) 3,062원/마리(△9.2%), (참조기) 1,809원/마리(△2.1%), (고등어) 3,243원/마리(1.3%), (마른멸치) 21,043원/1kg(△4.8%)

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“할인행사,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 다양한 물가안정 대책의 효과로 해수부 소관 6대 성수품 가격은 전반적으로 작년 설보다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.”라며, “명태, 참조기 등 주요 성수품 정부 비축물량 9천 톤을 시중가보다 30% 이상 저렴하게 시장에 공급하고 있고, 이번 주부터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품목은 유통업체 등과 협력하여 50% 수준까지 할인율을 상향하는 등 설 명절 민생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.”라고 강조하였다.

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“지난해 생산이 감소한 사과와 배의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도 농식품부 소관 10대 성수품의 가격은 정부 비축·계약물량 공급 확대, 할인행사 및 축산물 수급 안정 등에 힘입어 작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”라고 말하고, “농식품부는 설 1주일 전부터 채수용 사과·배 3개들이 90만 팩에 대하여 마트 공급가격 인하를 지원하고, 실속 선물세트 10만 개를 준비하여 시중가 대비 15~20%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등 설 명절 전까지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강조하였다.

담당 부서	해수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	책임자	과 장	구도형 (044-200-5440)
		담당자	서기관	정재훈 (044-200-5627)
담당 부서	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	책임자	과 장	신우식 (044-201-2231)
		담당자	사무관	남기현 (044-201-2234)

